

九 cm 總高一九·八 cm

〔附記〕 이 遺物은 本誌 三卷 六號 卍—에 記載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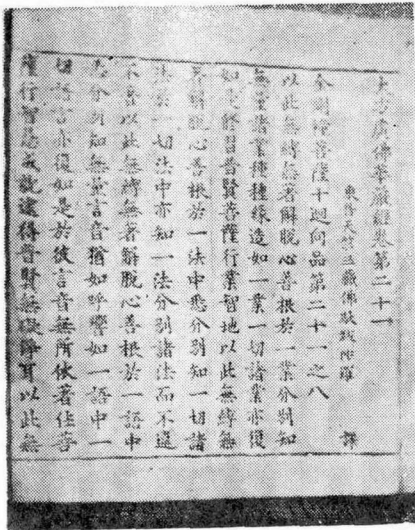
長谷寺의 金銅藥師坐像 腹藏佛經

李 殷 昌

一九五九年 四月에 靑陽 長谷寺 下大雄殿 金銅藥師如來坐像 ①의 腹藏遺物을 調査한 바 있는데 發見된 腹藏遺物中 ②에 高麗佛經으로 推定되는 金剛經·華嚴經 等과 朝鮮初의 것으로 推定되는 妙法蓮華經 等이나왔다. 이는 麗末·鮮初의 佛經刊行의 一貌를 엿볼 수 있는 資料로 생각되어 이에 紹介하는 바이다.

1. 金剛經

白紙에 아름다운 木板印刷의 折帖本으로 된 金剛經이다. 紙質은 尙 새 洋紙(更紙와 비슷함)에 比할 수 있는 것이며 上下의 界線이 있고 各行의 野線은 없다. 첫머리의 表紙와 初頭가 떨어져 나가서 變相圖의 有



無·經典의 書頭를 알 수 없고 끝 表紙만이 있는데 藍色厚紙로 되었으며 末尾에는 다음과 같은 墨書跋文이 있다.

「金剛經者以空

爲宗空性無尋一切圓應」

求長壽者能得長壽故謂之續命經是以伏爲」

皇帝萬萬歲」

皇后」

皇太子齊年享福

兼及寡躬延壽保

安上昇」

公主超生淨利社

稷長與法界生土

俱霑妙益」

印成一萬卷 廣

施無窮者」

泰定三年二月

日誌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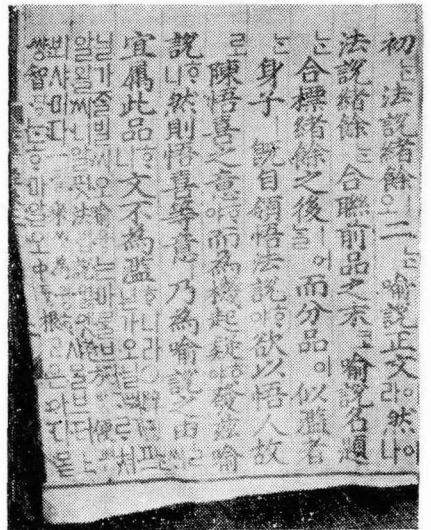
泰定은 元의 年號요 泰定三年은 高麗忠肅王十三年이니 이 經本은 高麗末에 刊行된 것이며 또 「印成一萬卷」이라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大規模의 佛經 刊行事業의 하나로 推測된다.

2. 華嚴經

大方廣佛華嚴經 卷二十一이니 白紙에 木板印刷된 折帖本인 바 한 장은 안으로 들고 한 장은 밖으로 나오도록 交互하는 所謂 蝴蝶裝으로 되어 있다. 紙質은 두터운 白紙요 表紙와 卷尾가 떨어져 나가서 跋文等은 볼 수 없다. 版面은 上下 界線을 두고 各行 野線은 없으며 各葉 六行씩 各行 十七字씩으로 되었고 字徑은 一·二cm 字間은 縱一·四cm 橫二·一cm로 歐陽詢體 楷字이며 字劃이 깨끗하고 또렷하였하여 마치 宋版을 連想시키는 高麗朝에 볼 수 있는 類例의 經版이다.

3. 妙法蓮華經

妙法蓮華經 卷第二이니 곧 諺解本이다. 紙質은 얇은 白紙이고 太線으로 된 匡廓과 野線이 있으며 板心魚尾 밑에 「法華經 卷二」라 적혀 있으며 「妙法蓮華經卷第二」라한 典籍題下에 印章이捺印되어 있다. 책을 풀러 갔을 잘라냈기 때문에 元來의 規格은 모르겠으나 印板 모습으로 보아 世祖時에 刊行된 木板本으로 推定된다. 世祖는 그 六年에 刊經都監



⑤을 두고 佛經刊行 佛經諺解事業④에 注力하였던 것이니 刊經都監의 佛經刊行事業에 依하여 世祖八年에 刊行된 妙法蓮華經諺解⑥ 七卷中 하나 인 것 같고 또 이 法華經은 世祖十年에 亦是 刊經都監에서 刊行된 圓覺經諺解⑥와 書體、體裁가 같으며 이것으로 現存하는 法華經諺解 卷四와 卷六⑦에 다시 卷二가 追加된 셈이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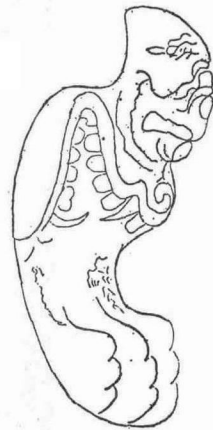
- ① 國寶五〇二號 靑陽長谷寺金銅藥師如來佛坐像
- ② 金剛經一冊·華嚴經一冊·妙法蓮華經(諺解) 一冊·祝願文一幅·至正六年書封筒一枚·至正六年墨書字布片一枚·銀製供養盒子一個·白銅鏡一個·其他數點으로 된 腹藏物이 發見되었음(國立博物館所藏)
- ③ 世祖實錄世祖六年六月十六日條
「初設刊經都監 置都提調·提調·使·副使·判官」
- ④ 刊經都監에서 刊行된 佛經諺解로서는 楞嚴經諺解·法華經諺解·金剛經諺解·阿彌陀經諺解·圓覺經諺解 등이 있다. (서울大學校 國語研究會刊 國語研究第一號 姜信沆「李朝初佛經諺解經緯에 對하여」參照)
- ⑤ 世祖實錄世祖八年九月條
「九月丁巳朔戊午 刊經都監進新刊法華經」
- ⑥ 世祖實錄世祖十年條
「三月丙辰……孝寧大君補嘗離校圓覺經 至是事訖 上御思政」
「四月癸未……圓覺寺成 設慶讚會赴 會僧一百二十八 披覽御定口訣 翻譯圓覺修多羅了義經、飯外護僧二萬、是日幸圓覺寺」
- ⑦ 法華經諺解卷四……方鍾鉉氏藏本 同書卷六 崔鉉培氏藏本(書誌第二卷 第一號金元龍「有刊記佛書目錄初稿」參照)

石獸脚의 一例

金 永 培

公州博物館 遺物倉庫를 整理하다가 石獸脚 하나가 着眼되었다. 이 石彫物은 過去日帝時에 蒐集되었던 것으로서 發見場所나 蒐集經緯가 全히

記錄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데 石獸脚은 花崗石製로서 鬼面에 獸足이 붙어 있는데 거의 完全品이다. 面相은 부릅뜬 눈과 악무른 齒牙는 鬼面의 偉容을 誇示하고 眉間에는 丸形의 光珠를 彫鏤하였으며 足은 五指로 區分되어 있고 面相後面에는 字形의 턱을 만들어서 物件의 받침으로 使用하였던 것이 分明하며 彫刻의 線이 豪活厚重하여 묵직한 安定感을 보여 주고 있다. 用途로서는 石階같은 곳에 裝飾용으로 配置되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年代는 相當히 올라 볼 수 있을 듯하고 稀貴한 類例이기로 簡單히 紹介하여 둔다.



側面圖 S=1:3.6

蛟龍山城

申 榮 勳

南原邑에서 보면 북쪽에 密德·福德 兩峰의 蛟龍山이 멀리 보이고 가